



**권혁천 목사**(Hyouk Chun Kwon),  
 상향중앙장로교회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전 생애를 통해 남겼던 어떤 말보다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기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소개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감격스런 약속도 하시고 능력으로 임할 성령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도, 주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도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은 전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수 세기동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생명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의 몇몇은 좀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민족들인데 불현듯 우리 곁에 그들이 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몇몇 국가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미국, 특히 이민자들의 분포가 많은 캘리포니아지역은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더 많이 받은 곳

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그들은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혹은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복음에 가난한 사람들로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이 소중한 소수민족들을 섬기게 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원 보이스 모임을 갖습니다. 모인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곁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언더우드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한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부흥시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베이 지역에 와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신 꿈을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 We must share the Gospel

We call a person's last words will. Those last words weigh more than all the words that have been said during the person's life. For that reason, those who receive the will do their best to carry out the person's last wishes

Matthew and Luke respectively records Jesus' last words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in Acts. They are expressed in different words, but they mean the same: Share the gospel to all peoples. This was, in fact, Jesus' will - His last wishes. To empower us to carry out His will, Jesus promised to be with us until the end and He also gave the promise of the power of the Spirit. Both Matthew 28 which records Jesus' last days on earth and Acts 1 which records the initial stage of the disciples' ministry, can be summed up as preaching